

- 2003년 국내 광학산업의 전망

시네트지
LCT 74



IT산업의 성장 주도하에 작년보다 낮은 5.6% 경제성장을 예상

2003년 분야별 산업 동향 및 전망

올해 우리나라는 IT관련 업종에서 수출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선진국의 본격적인 수요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기술적으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3년 산업전망' 보고서를 요약 정리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산업은 통신기기·반도체·가전 등의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철강·섬유 등 전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상반기 5.5%, 하반기 5.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지난 하반기부터 움츠러들기 시작해 둔화세가 지속되며 지난해 6.9%보다 1.7% 줄어든 5.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나 하반기 이후 수출과 내수 증가 유지에 필요 한 투자가 이뤄지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연평균 7.5%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축됐던 설비투자가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은 지난해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 등 IT관련 산업의 수출호조와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1626억달러를 기록하며 무



표 1. 산업별 전망(증가율)

	생산		내수		수출		(단위 : %)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가 전	11.5	9.6	15.4	10.1	9.1	8.9	
반 도체	24.9	13.8	22.0	10.9	15.9	12.8	
통신기기	23.9	16.4	16.9	8.8	32.0	19.2	
컴 퓨 터	30.7	6.3	26.9	8.1	15.3	7.9	
일반전자부품	1.5	7.1	-1.3	5.1	12.4	9.6	

자료 : 산업연구원

역수지 흑자가 103억달러에 달하고, 올해에는 수출규모가 7.2% 증가한 1743억 달러를 기록하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70억달러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기계

2003년에는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기계부문의 변동성도 그만큼 클 것으로 우려된다.

먼저 생산은 상반기에는 5% 내외의 낮은 증가가 예상되며, 하반기부터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생산증가율이 6.0%로 2002년(6.5% 전망)에 이어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한 기종별 명암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증가율 역시 5.4%의 낮은 신장세가 예상되며, 규모면에서는 42조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9.5% 증가한 1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경기개선 전망,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신장세 지속, 플랜트 수출확대에 따른 국산 기자재 수출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강화노력도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전

2003년 국내 가전시장은 지난해의 월드컵 특수와 같은 특별 이벤트부재로 수요 확대 요인이 크지 않아 신장세가 둔화될 것이나, 디지털 가전 시장 확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 등장에 따른 신규수요 창출, 디지털 기기 가격하락으로 대체수요 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1% 신장이 전망된다.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TV 등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출 증가, 백색가전의 수출단가 인상 등 수출구조의 고도화 진전으로 수출이 계속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 생산은 9.6%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03년 미국 등 선진권 경제가 2002년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디지털 방송개시 내지 본격화 등에 따른 고가의 디지털 가전 수요 확대, 중국으로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9% 증가할 전망이며, 내수를 대신하여 가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의 경우 민간소비 둔화로 2002년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일본산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의 수입 증가로 10.7%의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반도체

2003년 반도체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

반도체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측면이 아니라, 수요측면의 확실한 경기회복에 따른 가격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요증가를 견인할만한 확실한 응용제품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2003년 분야별 산업동향 및 전망

표 2. 산업별 생산 전망

	2001	2002		2003	(단위 : %)
		상반기	하반기		
가 전	20,096 (-)	11,863 (12.6)	10,541 (10.2)	22,404 (11.5)	24,562 (9.6)
반 도체	15,570 (-17.5)	9,183 (-5.7)	10,267 (49.1)	19,450 (24.9)	22,130 (13.8)
통신기기	24,470 (8.6)	14,600 (26.9)	15,730 (21.3)	30,330 (23.9)	35,310 (16.4)
컴 퓨 터	18,277 (-12.5)	12,127 (31.5)	11,767 (29.9)	23,894 (30.7)	25,405 (6.3)
일반전자부품	12,845 (-9.8)	6,151 (0.4)	6,881 (2.5)	13,032 (1.5)	13,957 (7.1)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단위는 반도체가 백만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10억원

표 3. 산업별 내수 전망

	2001	2002		2003	(단위 : %)
		상반기	하반기		
가 전	10,554 (-)	6,537 (18.1)	5,647 (12.5)	12,184 (15.4)	13,414 (10.1)
반 도체	16,858 (-17.1)	9,166 (12.0)	11,394 (31.4)	20,560 (22.0)	22,800 (10.9)
통신기기	15,329 (-16.3)	9,271 (19.7)	8,649 (14.1)	17,920 (16.9)	19,500 (8.8)
컴 퓨 터	13,498 (-15.1)	8,844 (27.4)	8,297 (26.4)	17,141 (26.9)	18,532 (8.1)
일반전자부품	11,715 (-10.3)	5,368 (-3.9)	6,201 (1.2)	11,568 (-1.3)	12,161 (5.1)

주: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단위는 반도체가 백만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10억원

특히 2002년 이후 데이터네트워크 시장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cdma2000 1x EV/DO 서비스와 함께 IMT-2000 서비스 상용화는 신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세계시장에 신규서비스 등장이 부진하고, 내수시장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신규공장 건설 등 대규모 라인구축보다는 합리화나 연구개발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통신시장의 추세를 반영한 무선데이터 관련 기기와 IMT-2000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동전화기, 시스템 등의 수출수요를 기반으로 생산이 다소 확대되어 전년대비 16.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컴 퓨 터

2003년 국내 컴퓨터산업 생산은 IT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 투자 수요 증가, PDA 등 포스트 PC와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지난해 4분기의 경기상승은 일부선팔 업계의 제품전환에 따른 공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이며, DRAM의 아키텍처분야를 기준 주력상품인 Sync에서 DDR로 전환 시킴에 따라 일부기업에 편중되는 수혜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중에 대부분의 DRAM업체가 신속히 DDR로 전환됨에 따라 또 다시 공급과잉 재발이 우려된다.

반면, 휴대폰 등 모바일 수요는 증가되어 플러쉬메모리, SRAM 등의 경우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모바일제품은 비메모리의 비중이 높아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올해에도 반도체 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기기

2003년 국내 통신시장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성장둔화가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진, 신규수요가 창출되고 또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네트지 78

표 4. 산업별 수출 전망

	2001	2002		2003	(단위 : %)
		상반기	하반기		
가 전	9,693 (-4.4)	5,424 (7.7)	5,150 (10.5)	10,574 (9.1)	11,515 (8.9)
반 도체	14,259 (-45.2)	7,767 (-9.3)	8,763 (53.8)	16,530 (15.9)	18,640 (12.8)
통신기기	10,598 (23.8)	6,015 (34.5)	7,975 (30.2)	13,990 (32.0)	16,680 (19.2)
컴 퓨 터	11,240 (-23.5)	6,440 (14.1)	6,518 (16.5)	12,958 (15.3)	13,976 (7.9)
일반전자부품	4,992 (-19.8)	2,669 (8.0)	2,940 (16.6)	5,609 (12.4)	6,150 (9.6)
11개업종	110,894	58,151 (2.6)	63,822 (18.1)	121,975 (10.0)	132,755 (8.4)
합 계	(-13.7)				

주: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건이기는 하지만 점차 대미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업체들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동기대비 7.9%의 수출 신장이 예상된다.

수입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품 수입가격 하락추세 지속과 주요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로 6% 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 증가, 중국, 인도 등 아태 지역의 IT 경기 지속 성장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6.3% 증가한 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PC의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모바일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PDA 수요 증가, 고성능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지속적 수요 증가, 업체간 경쟁 확대로 인한 지속적 가격 하락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8.1% 신장된 18조원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컴퓨터산업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경기의 조기회복 여부가 관

일반전자부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반전자부품산업은 전자관 및 전자관부품, 인쇄회로기판, 액정디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일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수출대상국이 중국, 유럽, 남미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9%내외의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LCD, PCB 등의 부문에서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여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상반기 이후 국내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생산 증가분은 대부분 수출부문으로 전환됨에 따라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FT LCD 부문에서는 대만업체들의 제휴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향후 시장확보를 위한 일본, 한국, 대만 업체들의 가격 및 기술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